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784천km ²	G D P (2012년도)	7,911 억 달러
인구 (2012년도)	74.70 백만명	1인당 GDP (2012년도)	10,590 달러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Yeni Turkish Lira)
대외 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U\$ 기준) (2012년도)	1.80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7,4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으로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2004년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럽 경기침체로 인해 EU 가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태임.
-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포스트 브릭스(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부터 FTA를 체결하여 2013년 5월 중 발효를 앞두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EU의 경제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경제성장세 지속

- 터키는 2000~01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IMF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2004~07년 평균 7%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기록함.
 - 2002년부터 집권한 현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 부문 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등의 정책으로 경제안정화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 수출시장이자 투자국인 유럽의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7%를 기록하였음.
- 2009년 4분기부터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2010년에는 9.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에도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및 소비지출의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이자지급 감소 등으로 GDP 대비 8.6%의 성장을 계속함.
- 2012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완화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터키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2%로 낮아졌음.

* 경제성장률: 9.0%('10) → 8.6%('11) → 3.2%('12)

□ 재정수지 적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 터키 정부는 과거 선심성 재정지출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내었으나 EU 가입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음.

- 2009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재정지출과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5.5%로 크게 악화됨.
- 2010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간접세를 인상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개선되었음.
- 터키 정부는 2011년 총선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사회보장기금 관리, 재정지출 억제정책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1.4%까지 축소했으나, 2012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2.0%로 다소 확대됨.

□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압박

- 터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과거 경제위기의 유발요인과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가격의 하향세와 국내외 수요 감소로 6.3%(중앙은행 목표치: 7.5%)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간접세 인상 등으로 8.6%(목표치: 6.5%)로 상승함.
- 터키 통화당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선으로 낮추기 위해 2011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나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내수증가로 2011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를 기록함.
- 2012년에는 리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전기·가스요금 및 각종 간접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0%로 상승함.
- 2012년 터키정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가솔린, 주류,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였음. 특히 자동차의 경우 터키 전체 자동차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1600cc이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량가격의 37%에서 40%로 인상시켰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8.6%('10) →6.5%('11)→9.0%('12)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0.7	-4.7	9.0	8.6	3.2
재정수지/GDP	-1.8	-5.5	-3.7	-1.4	-2.0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6.3	8.6	6.5	9.0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제 구조적 취약성 극복

- 과거 터키는 해외차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 번번히 IMF의 차관을 지원받아 왔음. 그러나 2008년 5월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추가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및 환율불안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터키의 경제체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나.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 풍부한 노동력 보유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함. 터키를 중심으로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아프리카,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인종적·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터키의 평균연령은 30.1세로 경제능력인구(15~64세)가 67.6%로 청년계층이 풍부하고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수준, 근로의욕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터키 노동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터키 노동자들은 문맹률이 낮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높은 편이며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성실하다는 평(주 6일 45시간 근무가 기본으로 평균결근율은 1.5%미만)을 받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008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3년 3월 현재 5.50% 수준 형성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10월까지 16.7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7%수준으로 인하한데 이어 2010년 12월 기준금리를 6.5%로 인하하였고 2011년1월에도 25bp를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는6.25%를 기록하였음.
- 터키중앙은행은 2011년 8월 경기하락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5.75%로 50bp 인하하였고 2012년 12월에 물가 상승 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수위축 등을 이유로 25bp 추가하여 현재는 5.50%를 기록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기초

- 터키는 중간재 및 원자재(석유, 가스, 철강)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이 낮아 저가제품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무역상대인 EU 및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2%로 전년 대비(2008년 -5.7%) 개선되었음.
- 2010년에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리라화 강세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6.4%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2011년에도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9.9%까지 확대되었음.
- 2012년에는 수입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광수입 및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6.2%로 개선되었음.
 - 2012년 수출액 증가는 이라크, 이란, UAE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에서 기인함.

* 경상수지/ GDP: -6.4%('10) → -9.9%('11) → -6.2%('12)

□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통한 투자환경개선으로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 터키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 외국인투자법 개정, 법인세 감면 및 포괄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WEF): 61/139('10) → 59/140('11) → 43/144('12)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IFC): 73/183 ('10) → 71/183('11) → 68/183('12)

- o 터키는 주요 투자기관 및 연구소들로부터 브릭스(BRICs)에 근접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차세대 신흥국으로 꼽히며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NEXT-11(골드만 삭스), BEM(미국 상무부), VISTA(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 등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 상 수 지	-41,524	-13,370	-46,643	-77,236	-48,864
경상수지/GDP	-5.7	-2.2	-6.4	-9.9	-6.2
상 품 수 지	-53,021	-24,850	-56,445	-89,472	-65,602
수 출	140,800	109,647	120,902	143,404	163,316
수 입	193,821	134,497	177,347	232,876	228,918
외 환 보 유 액	70,231	69,178	79,046	76,659	98,280
총 외 채 잔 액	287,977	272,657	303,621	323,533	345,332
총외채잔액/GDP	39.4	44.4	41.5	41.6	43.7
D S R	29.7	45.1	35.8	26.7	22.3

자료: IMF, EIU.

4. 외채상환능력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외채구조의 점진적 개선에도 단기외채 비율이 높은 편

- o 총 외채잔액은 2009년 말 2,727억 달러에서 2010년 말 3,036억 달러, 2011년 말 3,23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GDP대비 외채잔액 비율은 44.4%에서 41.6%로 하락함.

- 2009년 70%대까지 감소하였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0년 이후 외채증가와 함께 다시100%대의 높은 수준임. 높은 단기부채 비율로 인해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이 큰 것이 터키 외채구조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힘에 따라 터키 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단기외채잔액(백만 달러): 51,535('09) → 79,910('10) → 86,131('11) → 90,878('12)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74.5%('09) → 101.1%('10) → 112.4%('11) → 115.6%('12)

□ 변동성이 크고 높은 수준이었던 DSR은 하락 추세

- 과거 터키의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30~40%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었으나,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200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DSR: 45.1%('09) → 35.8%('10) → 26.7%('11) → 22.3%('12)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의 재집권 성공으로 정치안정성 제고

- 2002년부터 집권해 온 정의개발당(AKP)은 2011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이후 총리직을 수행(연임)하고 있으며,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현 압둘라 굴(Abdullah Gul) 대통령은 2007년 의회에서 선출되었음.
- 현 여당은 50%대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500석 중 327석(약 65%)을 차지함. 이는 10% 미만을 획득한 정당은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

관련법을 따른 데 기인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적 안정도는 비교적 양호

- 터키 국민의 99%는 이슬람교(수니파)를 믿고 있으며, 1923년 아타투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 간 분쟁은 없는 편임. 터키 국민은 성격이 급하나 근면하고 소박한 편으로 알려짐.

□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는 PKK의 휴전선포로 화해무드

- 터키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주로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족 반군(PKK)의 분리운동 및 충돌사태가 발생했음.
- 터키 쿠르드족은 상대적으로 정치 활동이 적은 편이며, 터키의 EU 가입에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계속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의 평화적인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인접한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 연맹이 의석의 1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는 터키에서는 상대적으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작은 편임.
- 2013년 3월, PKK의 지도자인 Abdullah Ocalan이 PKK 요원들의 무장해제와 철수를 촉구함에 따라, 북부이라크를 본거지로 한 전투사령부의 Murat Karayilan 사령관이 PKK관련 모든 조직의 휴전을 선포하였음.

3. 국제관계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 외교(실용적 중도 노선 유지)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서방과 중동국가 간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엄격한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에 채택하여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
- 또 이슬람국가 중 유일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1947년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하여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시작한 이후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 체결,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
- o 에르도안 총리의 연임(3선)으로 기존의 대외관계 및 외교노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가스관 건설관련 유럽과 러시아 모두를 지지하는 중립적 입장

- o 현재 EU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o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Gazprom)는 이탈리아(Eni)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시장을 확고히 장악하고자 하고 있음.
- o 터키는 현재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나, 유럽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영해를 통과하는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을 승인(2011년 12월)하여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및 테러발생으로 양국 간 긴장 고조

- o 터키 정부는 과거 시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시위 유혈진압에 대해 비난하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 o 시리아 사태가 내전양상으로 심화되며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도

폭격 및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시리아로부터 17만 명(2012년 말 기준)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2012년 6월 시리아 공군은 터키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같은 해 10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지역(Akca kale)에도 시리아군의 박격포 공격이 있었음. 또한 2013년 2월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 인근(Cilvegozu) 에서 대규모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사이프러스의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는 답보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음.
- 2004년 5월 남부 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 사이프러스만 정식국가로 승인함. 이에 터키 측은 남사이프러스에 영공 및 자국 항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사과로 양국 간의 외교관계 회복조짐

- 2010년 5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난민구호선을 공격하여 터키인 9명이 숨진 이후, 터키에서는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양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왔음.
- 그러나 2013년 3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에게 과거사를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터키 측에서도 이스라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시사함.

□ EU 가입협상은 정체국면

- 터키는 199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2004년 EU의 정치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를 충족하여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였음.
- 터키 정부는 사형제도 및 국가안보법 폐지 등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 쿠르드족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가입이 지연되고 있음.

- 터키정부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 EU 가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태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경제구조 개선 노력으로 IMF의 긍정적 평가

- 터키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유동성위기가 자주 발생하여 과거 외채 리스케줄링을 받거나(1978년 13억 달러, 1979년, 12억 달러, 1982년 30억 달러) IMF의 대기성차관(1984~2005년, 총 520억 달러)을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재정 및 유동성관리를 통해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2008년 5월 IMF의 대기성차관이 종료된 이후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음. 2012년 6월 IMF는 유로존 위기와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29억 달러, 중장기 271억 달러로 총 300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160만 달러로 전체의 0.04%에 그쳐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0.4%)으로 최상위 수준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터키 신용등급은 상향추세

- 2012년 11월 Fitch는 공공부채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수출다변화 및 건전한 은행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터키가 지속가능한 경제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하였음.
- 2012년 6월에 터키 정부채권의 신용등급을 Ba1(투자적격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으로 상향 조정한 Moody's도 2013년 1월 또 다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하였음.
- 2013년 3월 S&P도 터키의 2012년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 재정건전성 강화 및 쿠르드족과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3년 만에 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 4)	C1 (2012. 9)
OECD	4등급 (2013. 1)	4등급 (2012. 1)
S&P	BB+ (2013. 3)	BB (2012. 5)
Fitch	BBB- (2012.11)	BB+ (2011.11)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양국 간 무역불균형(우리나라의 대 터키 출초) 지속

- 양국 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7~09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감소한 이후 2010년에 42억 달러, 2011년 58억 달러로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에는 52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 특히 2009~11년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흑자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해 대 터키 무역흑자 규모는 2009년 22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2억 달러, 2012년에는 39억 달러로 터키는 우리나라의 11대 무역흑자국이 되었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과 철강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터키의 10대 수입국임.

□ 대 터키 직접투자는 경제교류에 비해 미흡한 편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는 실적은 2012년 12월말 기준(신고금액 누계) 12.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36위국임.
- 대 터키 직접투자액: 2억 4,729만 달러('09) → 6,364만 달러('10) → 1억 4,420만 달러('11) → 2억 5,678만 달러('12)

□ 한-터키 양국 간 FTA 체결로 향후 교역 및 투자증대 예상

- 양국 간 경제교류는 정치·외교적 관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한-터키 FTA 체결에 따라 향후 교역 및 투자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터키 FTA는 2012년 8월 정식 체결되어 2012년 11월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통과되고, 2013년 1월 터키 의회비준과 3월 정부 서명절차를 거쳐 2013년 5월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터키 정부의 육성산업(교통인프라 및 정보통신)과 우리나라가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산업(에너지),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교통인프라 및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V. 종합 의견

- 터키는 대규모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주요 신흥시장임. 최근 주요 교역 대상국인 EU의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경제성장 지속, 수출증대(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2011년 6월 총선으로 집권여당(정의개발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에르도안 총리가 재선임 되면서 집권3기의 국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정치안정성과 기존의 균형 외교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터키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노력과 특히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이유로 2009년 이후 터키 신용등급을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 FTA를 체결하고 2013년 상반기 중 발효를 앞두고 있어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됨.

조사역 유나영(☎02-3779-5708)
E-mail : smilenayoung@koreaexim.go.kr